

작은 꽃

주요 날짜:

- 2월 4일
Soup Kitchen 봉사
- 2월 11일
성경모임
- 2월 18일
설
- 2월 21일
재의 수요일
-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 2월 25일
월례회

다음쪽:

12월 월례회
한 걸음씩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감사

이 은재 마리아, SFO

대림시기가 시작될 때 Mark 수사님께서 열 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현재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40년의 고난으로 훈련시켰듯이 나에게도 광야는 비켜갈 수 없는 여정이었지요. 많은 성인들이 광야(사막)로 찾아 들어 하느님을 만나고자 고난을 자처하셨듯이 광야가 바로 깨우침을 얻는 곳이겠지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회개생활의 혹독한 고난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서였겠지요. 지난번 휘닉스 피정 중에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굉장히 값이 비싼 보물인데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 보물만 간직하시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옛날에 장터에서 약을 파는 약장사처럼 말씀하시어 한바탕 모두 웃었습니다. “그 보물이란 기대하지 말라입니다.” 어느 분이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슬픔과 불만과 미움으로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주신 보물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데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도 제가 옆길로 빠질 줄 아시고 여러 가지 길잡이를 세워주시어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서와 교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4조의 ‘복음을 삶으로 삶을 복음으로’와 회칙 7조의 ‘매일의 회개’라는 특히 나에게 필요한 보물을 주시어 광야에서의 여정을 어떻게 그분 뜻에 맞게 가야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희비가 엇갈린 긴 여정을 통하여 현재 이 시간에도

놓아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가나안임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가슴에 장식하고 빛과 소금으로써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행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모임 - 기말고사



성탄 전야의 수난?

기말고사! 듣기만 하여도 학창 시절의 악몽이 저절로 떠오르는 단어. 2006년을 마치면서 성경모임 봉사자 레지나 자매는 너무도 야속하게 굳이 총정리 시험을 고집하였습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저녁 성경모임에는 역시 시험이라는 심적 부담 때문이었는지 다른 때에 비해 부쩍 적은 7명의 수험생이 참석하여 장장 2시간에 걸쳐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성경에 대한 open book 시험을 치뤄야 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그 동안 성경모임에 착실히 임한 참석자들을 위해 레지나 자매가 준비한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모임 공부를 시작한 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거스틴 형제의 개근상을 시작으로 결국 참석자 전원에게 한 개 이상 썩의 상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참석치 않은 형제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푸짐한 저녁 식사를 끝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ghwan
@yahoo.com

12 월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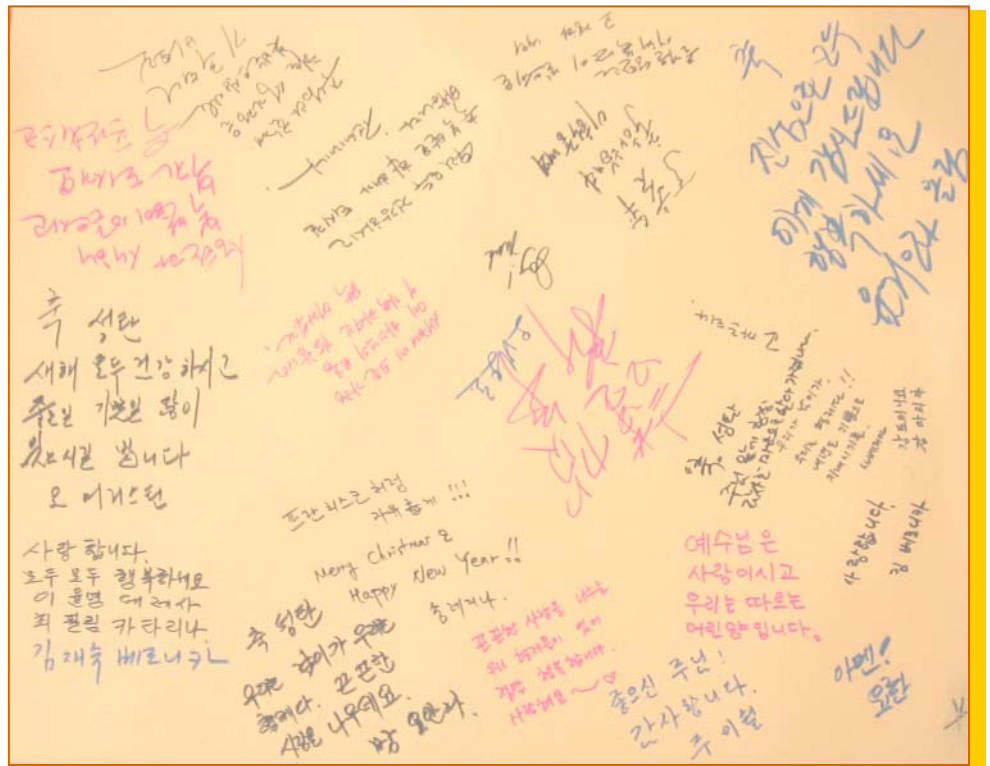


선물 뺑기

성탄과 겹치는 관계로 일주일 앞당겨진
월례회 겸 성탄 party 가 지난 달 17 일

오 어거스틴 형제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목에 중점을 둔 이번 월례
회에는 모처럼 형제 거의 전원이 참석하
였고 많은 가족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일정의 부담없이 느긋한 분위기 속
에서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
었습니다. 영적 보조자 Mark 수사님의
‘과거와 지금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시
작으로 성무일도, 월례회, 저녁 식사, 오
락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순서인 선
물 뺑기에서는 형제애는 뒤에 접어두고
좋은 선물을 위한 열띤 경쟁이 있었습니
다. 성탄을 맞이하여 형제들의 성탄 인
사를 담아보았습니다.

성탄 메세지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그간 성원하여 주신 ‘이달의 작은 사람’에 이어 ‘한 걸음씩’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양성과정을 거치
며 많은 지식을 얻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본적인 프란치스코 지식을 포함하여 잇는 것도 많은
듯 합니다. ‘한 걸음씩’은 매달 선정된 주제를 한 형제가 공부하여 나누는 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의 수많은 단체 중 교황 성하께서 인준하신 규범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
다. 그 중 하나가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이며, 이는 회칙 3 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형제회를 교회 안으로 제도화시킨 형제회의 첫 보호자이신 우골리노 추기경에 의
해 1221 년 첫 회칙이 탄생되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1289 년에는 니콜라오 4 세께서 그
리고 1883 년 레오 13 세께서 회칙을 개정하셨습니다. 현 회칙은 1978 년 바오로 6 세께서 개정하
여 인준하신 회칙입니다. 창시자의 영적 체험의 원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로 프란치스코 성인
께서 직접 작성하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회칙의 머리말로 시작됩니다. ‘일생동안 재속 프란치
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회칙이 단순한 참고 서적
이 아닌 내 삶에서 살아 숨쉬는 지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